

“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출근한다”

7일,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휴직 연장 거부하고 출근 ... 금속노조 “외투기업 구조조정 더는 안 돼”

마지막으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공장에 들어섰다. 해고자들은 출근을 축하하는 노동자·시민과 기자들에게 연신 “고맙습니다. 출근합니다” 라고 외쳤다. 손을 흔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마흔여섯 명이 1월 7일 사측과 기업노조의 부당한 휴직 합의를 거부하고 출근했다.

해고자들은 출근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2018.09.21.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늘 출근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사측은 부서배치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12월 24일 사측과 기업지부의 휴직 연장 합의 소식을 듣고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라고 충격의 순간을 상기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마흔여섯 명 해고자는 어느 때 보다 자주 만나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 라며 “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출근한다는 마음을 모

았다” 라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측 대표를 만나 부서배치 요구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일갈했다.

“쌍용차, 사회적 합의 어긴 책임져야”

김득중 지부장은 해고 10년 7개월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의식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우리 해고자들은 10년 7개월 동안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현장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 라인에 적응할 자신이 있다” 라며 “정말 오랫동안 동료들과 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먼저 손을 부여잡겠다. 동료들과 품질 좋은 명차 쌍용차를 만

들어 보이겠다” 라고 다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신임위원장이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길에 함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축하하지만 서럽다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해고의 순간부터 복직의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서럽다. 그렇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라며 최후의 복직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무기한 복직을 미룬 책임과 원인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 라고 쌍용차 사측에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외투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며 “외투기업이 더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 라고 약속했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은 현장 배치를 받을 때까지 출근투쟁을 벌인다. 1월 8일부터 주간 연속2교대 시간표에 따라 06시 00분부터 출근한다.

“조직화 사업 최우선, 모든 조직 역량 투입”

6일 2020년 사무식, 사무처 직접 현장 투입 방식 고려 ... “위원장으로서는 신규·투쟁사업장 더욱 밀착”

금속노조 신입 11기 집행부와 임원, 사무처가 1월 6일 조합 회의실에서 사무식을 열고, 11기 1년 차 사업에 돌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무식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사무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0기에 부족한 사업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겠다. 11기 금속노조 집행에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노조의 전략사업으로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 방향을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조직사업부장 여덟명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에 모든 부서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에 미조직전략실과 더불어 각 부서가 씨줄과 날줄이 돼야 한다. 한 지역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상집 등을 통해 결정하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선발해 일주일 단위로 캠페인부터 현장 조직화까지 투입하는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철강과 더불어 전기·전자, 제조서비스, 일반 업종까지 조직화에 나서고, 조직 내 논의를 거쳐 11기 2년 차에 조직화 전략사업본부 구성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무처 모든 부서 조직화에 투입

김호규 위원장은 사무처 각 부서가 변화한 상황에 맞는 사업과 특색있는 사업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예년과 다른 사업 추진해달라. 상집과 중집 토론 거쳐 세부계획으로 만들자. 걸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무처 내부의 자신감을 만들어보

자”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실별 역량 강화에 함께 노력해달라. 임원들이 뒷받침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별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무처 각 부서에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의제나 제안을 한 달에 한 번 상집회의에서 발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실과 연구원 등이 업종별 의제, 조직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신규사업장과 투쟁사업장을 좀 더 밀착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조직실과 복수노조사업장 관련 대책과 전술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쌍용차와 지엠 비정규직 투쟁이 올해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투쟁사업장 문제를 전 조직 투쟁으로 어떻게 묶어 세울지 고민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금속노조 11기 신입 집행부와 사무처는 오는 8일과 9일 11기 1년 차 사업 기초를 토론하는 수련회를 연다.